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 8.

CEPA Insight

- **韓, 인니에 2분기에만 1.8조원 투자... 美日 꺾고 3위에 올라**
- **인니, 무상급식 공약 위해 내년 우유 300만t 수입 추진**
- **섬유, 원단, 전자, 신발, 의류, 자기, 미용 등 7대 수입품 대대적인 조사 착수... 특별관세 예고**
- **프라보워 이코노믹 전망치 “경제 성장률 8% 달성할 수 있다”**
- **2024년도 경제특별구역 Rp78조 투자 목표... 22개 특구 가동 중**

■ **韓, 인니에 2분기에만 1.8조원 투자..美日 꺾고 3위에 올라**

‘KCC·LG엔솔 등 투자 진행 중...”美IRA 대응 위해 中 대신 韓 원해”

- 올해 2분기(4~6월)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체 3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일본을 제쳤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는 133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국가별 투자액에서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각각 46억 달러와 39억 달러를 기록하며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3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는 한국의 투자 성장을 높이 평가하며,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준공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KCC와 LG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CC글라스는 중부 자바 바탕에 세계 최대 수준의 유리 제조 공장을 세우고,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 BCA 은행의 데이비드 수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투자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관련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중국 대신 한국을 니켈 파트너로 삼으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 지분을 줄이고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퍼르마타 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07.30)

■ 인니, 무상급식 공약 위해 내년 우유 300만t 수입 추진

‘평소 소비 우유 80% 수입..."낙농업 확대해 장차 수입 줄일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 300만 톤의 우유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낙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인도네시아는 소비되는 우유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열대 기후로 인해 우유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 부족하다. 정부는 낙농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투자자 확보와 낙농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며, 농장 현대화와 같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무상급식 정책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9년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면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연 45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07.30.)

■ 섬유, 원단, 전자, 신발, 의류, 자기, 미용 등 7대 수입품 대대적인 조사 착수...특별관세 예고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소매업계의 항의에 대응하여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와 인도네시아 소매업자 및 쇼핑센터 임차인 협회(Hippindo)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역부는 현재 섬유, 의류, 미용, 전자제품 등 7개 수입 제품의 최근 3년간 수입 증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KPPI)가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수입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 무역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히핀도 사무총장은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물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7.23.)

■ 프라보워 이코노믹 전망치 “경제 성장률 8% 달성할 수 있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5년 내에 8%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의 개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그는 현재의 경제 정책이 5%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 높은 목표인 8%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다만, 효율성과 개선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경제금융개발연구원의 디딕 라흐비니 연구원은 프라보워의 목표가 현재 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 부문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7.23)

■ 2024년도 경제특별구역 Rp78조 투자 목표... 22개 특구 가동 중

- 인도네시아 경제특별구역(Kawasan Ekonomi Khusus, KEK)은 지역 발전과 내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KEK를 개발하여 세금 감면, 면허 취득 용이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2024년에는 78조 루피아의 투자 유입을 목표로 하며, 국립경제특별구역 협의회는 각 경제특구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안 7개 경제특구가 투자 목표의 4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현재 22개의 경제특구가 운영 중이며, 이들은 산업, 관광, 디지털 및 기타 서비스 분야로 나뉜다. 특히 외국인 투자 비율이 71%에 달하며, 북수마트라의 Sei Mangkei 경제특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07.28.)



(출처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



(출처 : 연합뉴스)

<우유 나눠주는 부통령 당선인>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줄키플리 하산, 수입 절차 감독 태스크포스 기자회견></p>	<p><프라보워 대선 후보 2024 만드리포럼 기조연설></p>	<p><국립경제특별구역 협의회 홍보자료></p>

■ 시사점

- 올해 2분기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체 3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일본을 제쳤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는 133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으며, 한국은 13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KCC글라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낙농업을 활성화하고 무상 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우유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무역부는 불법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별구역(KEK)은 지역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